

# “간호사, 한목소리 내고 함께 일하자”



국제간호협회(ICN) 회장 Annette Kennedy 초청 특별강연

ICN 아네트 케네디 회장 초청 특별강연회가 '차세대 간호리더를 위한 간호전문직의 도전과 기회' 주제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 ICN 아네트 케네디 회장 초청 차세대 간호리더 위한 특별강연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리더이며, 간호사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전 세계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국제간호협회(ICN)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회장 초청 특별강연회가 '차세대 간호리더를 위한 간호전문직의 도전과 기회' 주제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특별강연회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전국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종필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했으며, 정우택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백승주 국회의원, 김성태 국회의원, 이종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간호 리더십, 도전과 기회' 주제로 강연한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간호대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항상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하고, 매일 학습하며, 다양한 조직에서 활동하고, 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가 건강 및 간호정책의

사결정과정에 있어 직접 참여하고, 정책제이블에 앉아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ICN은 간호사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넬싱 나우(Nursing Now)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네디 회장은 “간호사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큰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목소리로 ‘함께 일하는 것’(Working Together)”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보건정책, 간호인력의 도전과 기회’ 주제로 강연한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ICN 정책국장은 “간호사는 세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간호사 적정인력 확보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간호사 수는 환자안전과 환자결과, 의료서비스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들은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간호사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1차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간호의 도전과 미래’ 주제로 강연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현장 중심의 통합실무지식을 갖춘 간호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움으로써 간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한 보건 의료 및 간호 통합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며 “글로벌 간호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간호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간호사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할 수 있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네트 케네디 회장은 특별강연에 이어 11월 1일 열린 ‘2018 간호정책 선포식’ 및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유럽간호사연맹(EFN) 회장, ICN 제3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병원 현장에서 18년 동안 근무했으며, 아일랜드간호사조산사협회 국장으로 19년간 일했다. ICN 변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유럽간호사연맹 회장을 지낼 때 대정부 정책활동에 활발히 관여했다.

하워드 캐튼 정책국장은 영국 지방자치정부 위원(기업 및 고객 서비스분야 책임 내각 위원)과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 및 조직변경 관리자, 영국 왕립 간호대학 정책 및 국제문제 담당 등을 역임했다. 2015년 ‘헬스 서비스 저널’이 선정한 ‘임상리더 100명’으로 뽑혔다.

주혜진 기자 hijoo@koreanurse.or.kr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 하워드 캐튼 ICN 정책국장, 신성례 ICN 제3부회장.

## 간협 - ICN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 “보건복지부 간호전담부서 설치해야”

대한간호협회는 국제간호협회(ICN) 아네트 케네디 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이번 면담은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이 ‘2018 간호정책 선포식 및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차 내한함에 따라 10월 30일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ICN 신성례 제3부회장과 하워드 캐튼 정책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넬싱 나우는 ICN과 WHO가 함께 펼치는 글로벌 캠페인”이라며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간호사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ICN은 간호전문성 향상과 간호사 위상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고,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넬싱 나우 캠페인과 관련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하나씩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에서 간호사의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현장으로 나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넬싱 나우 캠페인을 통해 각국 간호협회가 적극 추진해야 할 활동목표 중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전문직 자율규제 강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이 글로벌 간호리더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전담부서 설치에 여러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늦어지고 있다”면서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데스크포스팀 형태의 조직을 빠른 시일 내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 전담부서 설치 추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법국민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식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ICN을 중심으로 세계 간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네트 케네디 회장은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전 세계에 간호사의 가치를 알리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ICN 회장 특별강연

#### 간호 리더십, 도전과 기회

### 주도적으로 목소리 내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라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기술과 지식을 갖춘 간호사가 적체적소에 배치돼야 한다.

간호사는 전 세계 보건의료인력의 50%를 차지하며, 실제 의료서비스의 90%를 수행하고 있다. 건강 및 간호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직접 정책제이블에 앉아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맡겨버리게 되므로 반드시 정책제이블에 앉아야 한다.

간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분야는 만성질환(NCD) 조기예방이다. 간호사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의료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다. 만성질환 조기예방을 위해 간호사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활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ICN은 간호사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넬싱 나우(Nursing Now)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리고,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전 세계에 간호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간호대학생은 우리의 미래다. ICN은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리더십 훈련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간호사 리더를 배출해야 한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 동료들과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다분야의 통합된 팀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간호사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큰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목소리로 ‘함께 일하는 것’(Working Together)이다.

#### 넬싱 나우 글로벌 캠페인

### 간호사 역할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호사는 전 세계 보건의료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직이다. 돌봄의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다.

간호사들이 적절한 기술, 지식, 권한을 갖는다면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보다 나은 결과를 창출하고 모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넬싱 나우는 국제간호협회의와 세계보건기구가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간호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넬싱 나우는 앞으로 3년간 계속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간호사들의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간호사를 스스로 글로벌 운동을 주도하고, 학습하고,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1세기의 건강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간호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모든 측면에서 간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사의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먼저 간호사가 적절히 배치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사회운동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사례가 많이 있다.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소외된 집단부터 시간과 자원을 들여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슈에 매진하는 사람들, 서로 돕는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넬싱 나우 홈페이지와 SN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